“제발 꽃구경 오지 마세요”…상춘객 만류하는 벗꽃 명소들

영암군은 ‘100리 벚꽃길’로 유명한 왕인박사유적지 벚꽃축제를 취소하고 유적지 출입을 전면 통제했다. 〈영암군 제공〉

정읍시는 벚꽃 방문객들을 통제하기 위해 방문 자제 현수막을 내걸고, 천변로 불법 주정차 단속도 강화한다. 〈정읍시 제공〉

구례군은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섬진강벚꽃축제를 취소하고 벚꽃길 산책로를 폐쇄했다. 〈구례군 제공〉

구례 ·영암·정읍 주민·지자체 코로나 경각심

방문 자제 곳곳 현수막…주차장·진입도로 차단
섬진강·왕인문화축제 등 취소…방역활동 강화

“제발 오지 마세요. 내년에 만나시게요.”

구례 섬진강, 영암 왕인박사유적지, 정읍천 등 벚꽃명소 주민들과 지자체가 상춘객 방문을 만류하고 있다. 최근 구례 산수유축제가 취소됐는데도 대구 코로나19 확진자가 꽃구경을 오면서 경각심이 커졌다. 지자체와 주민들은 곳곳에 방문 자제 현수막을 내걸고, 주차장·진입도로를 아예 차단했다.

◇구례 섬진강벚꽃 “내년에 오세요”

섬진강 벚꽃이 개화하면서 구례군이 상춘객 진입을 최소화고자 주차장과 일부 진입도로를 폐쇄했다.

구례군은 벚꽃군락지와 가까운 죽연주차장을 폐쇄하고, 순천 방면에서 진입하는 도로를 차단해 일방통행 구간을 운영한다.

벚꽃길의 농·특산물 판매장도 폐쇄하고 노점상 등도 강력하게 단속하기로 했다. 관광객들에게 유명한 구례 5일시장은 다음달 3일까지 휴장한다.

구례로 진입하는 도로변에 차량 발열 검사소를 설치했으며 벚꽃길 외곽 주차장에도 열화상 카메라를 구비한 방역초소를 운영한다.

주요 길목에 방문을 자제해달라는 현수막을 내걸었으며 주차장 등지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 동참과 마스크 착용을 안내하는 방송을 할 계획이다.

문척면 동해마을에서 간전면 남도대교를 돌아 토지면까지 이어지는 구례 섬진강 벚꽃길은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 100’에 선정되기도 한 명소다. 그러나 구례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올해 섬진강 벚꽃축제를 취소했다.

◇영암 상춘객 통제 비상대책반 운영

코로나19 확산과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올해 왕인문화축제를 취소했지만 몰려드는 상춘객 통제에 비상이 걸렸다. 영암 100리 벚꽃길에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자 영암군은 왕인박사유적지 출입을 전면 통제하기로 했다. 통제 기간은 28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다.

영암군은 상춘객 통제 비상대책반을 편성해 운영한다. 대책반은 방역, 교통, 시설물, 노점상, 청소 등 6개반 11개팀으로 구성됐다.

왕인박사유적지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게 입구부터 차단막을 설치해 차량과 방문객을 통제한다. 또 주요 이면도로도 통제구간으로 지정해 주정차를 금지한다.

방역 차량 2대를 이용해 벚꽃이 피는 주요 도로변 5개 구간, 10㎞에 대해서는 수시로 순회 방역을 하고 노점상 단속도 병행한다. 보건소와 연계해 열감지기를 설치하고 손소독제도 비치하기로 했다.

◇정읍 벚꽃축제 전면 취소

정읍시도 지역 대표축제인 ‘정읍벚꽃축제’를 전면 취소했다.

정읍시는 다음달 초순께 정읍천 벚꽃이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돼 벚꽃축제를 취소했다.

벚꽃축제가 열리는 정읍 천변로 일대는 매년 봄마다 2000여 그루의 벚꽃나무에서 벚꽃이 만개하는 정읍시민의 대표적인 봄나들이 장소다.

정읍시는 축제를 취소한 만큼 시민과 관광객 등 상춘객들의 벚꽃길 방문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세계 위기로 치닫고 있는 코로나19 감염병 사태의 엄중함과 정부의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라 벚꽃축제를 취소했다”며 “이번 봄만은 정읍 방문을 자제해줄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남원시, 코로나 피해 업체 무급휴직자에 지원금

최대 100만원 생계비 등 고용특별지원사업 추진…일용직도 챙겨

남원시는 코로나19 사태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코로나19 지역고용 대응 특별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남원시는 우선 코로나19 피해사업장을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조업이 부분 중단 또는 전면 중단된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의 무급휴직을 돕는다. 무급휴직 지원은 400명에게 총 4억원이 투입된다. 대상자에게는 1인당 하루 2만5000원(월 50만원), 최대 100만원의 생계비가 지원된다.

대상자는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이 심각단계로 상향된 2월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 휴직을 실시한 모든 업종의 사업장이다.

또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4억8000만원을 투입한다. 1인 중위소득 이하인 자에게 월 최대 50만원 2개월의 생계비를 483명에게 지원한다.

지원요건은 신청 전 3개월 간의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용역비(노무비)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해야 한다.

남원시는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일용직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도 돕는다.

지원은 실직 1개월 이상인 자를 우선 지원한다. 대상자는 사회보험료 접수와 방역 등 공공일자리를 참여한다. 1인당 월 180만원, 최대 540만원(3개월)의 인건비가 지급된다.

남원시 관계자는 “코로나 19피해 극복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다”면서 “앞으로 추가 시책을 발굴해 지역주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군산시, 코로나 등 긴급 재난재해 대비 571개 자치법규 ‘손질’

군산시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예기치 못한 긴급 재난재해에 대비해 자치법규를 일제 정비한다.

군산시는 감염병, 태풍, 화학사고 등 예측불가능한 자연적·사회적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시민의 안전과 지역사회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필요한 신속하고도 직접적인 지원책을 사전에 마련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현재 시행 중인 571개(조례 430개, 규칙 141개)의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긴급 재난재해시 각종 지원 방안 ▲시민규제 및 불편 사항 ▲상위법령 제정·개정사항 미반영 등을 중점 조사하게 된다.

주요 정비대상은 시민의 생활과 지역사회 안정에 밀접한 자치법규로 소상공인 지원, 재난물품 지원, 긴급 생계비 지원 등 재난재해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고대성 군산시 기획예산과장은 “자치법규 일제정비는 앞으로 긴급 재난·재해시 지원방안 미흡으로 시민들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늦어지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재난환경에 발빠르게 대응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kwangju.co.kr

익산 탑리·정읍 원촌·고창 덕산 등
전북도 ‘아름다운 농촌마을’ 선정

익산 왕궁면 탑리마을 등 7곳이 전북도 ‘아름다운 농촌마을’로 선정됐다.

선정된 마을은 탑리마을을 비롯해 정읍 칠보면 원촌마을, 순창 쌍치면 피노마을, 남원 산내면 대정마을, 고창 읍내면 덕산마을, 진안 읍내면 대성마을, 무주 안성면 도촌마을 등이다.

이들 마을은 자연환경, 전통문화, 역사 자원 등을 살려 농촌마을의 특성을 잘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북도는 이들 마을의 특색을 극대화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